

1/12(수) 창세기 37-40장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

야곱의 가정은 언약이나 축복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.

네 명의 아내들, 배다른 아들들 사이에 늘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.

야곱은 형을 만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가족들을 줄 세웠습니다(33:2).

가족들은 그 때 야곱의 진심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.

야곱의 마음은 한결같았고 결국 요셉은 <채색옷>을 입습니다(37:3).

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아들, <유다>도 선택하십니다.

갑작스럽게 끼어든 38장은 유다(지파)의 특별함을 암시합니다.

유다는 형제들을 주도하고, 훗날 가문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.

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는 다윗-예수그리스도에까지 연결됩니다.

(37:26-27, 38장, 44:14-34, 46:28, 49:9, 룻4:12, 18-22, 마1:1)

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일까요? 왜 요셉, 왜 유다일까요?

<선택>은 오로지 **하나님의 주권**입니다(17:18-19, 25:23, 48:14-20).

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<순서>와 같지 않습니다(삿16:15, 삼상9:21, 16:11, 왕상1:30).

하나님의 선택에는 <당연한 것>, <본래 그런 것>이 없습니다.

선택받았다는 것이 <완전함>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.

하나님은 사람과 상황, 과정들을 꿰뚫어 보십니다(시102:25-27).

사람의 중심을 아시며, 되어 질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(삼상16:7, 요일3:20).

다 헤아릴 수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 이유와 계획이 있으십니다.

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(롬11:29).

하나님은 장자권을 유다와 요셉에게 나누어 주십니다.

유다(지파)에게는 통치권을 주시고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(49:9-12).

요셉(자손)에게는 두 뿔의 땅을 주십니다(48:3-6).

* 장자권은 본래 유산과 관련된 것으로 장자는 두 뿔을, 나머지는 한 뿔을 갖는다.

오늘 통독하며 **선택된 두 사람**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십시오.

그리고 묵상해 보십시오. 나는 **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인정하는가?**

❶ 나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고 용납합니까?

❷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인정하고 용납합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창세기 37-40장 (16:30)